

우상의 왕국 태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2333/3 Theparak Soi 66, Theparak Rd., Muang, Samutprakan 10270 Thailand
 E-mail : pakmogsa@hanmail.net 카톡ID : pakmogsa
 ☎(001)-66-81-814-5968, (001)-66-84-705-6623
 후원 계좌:010-04-06389-795(외환,GMS). 129-12-012484(농협,박영성). 3333-04-9523013 (카카오뱅크)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 2020년 09월-10월 태국 선교편지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성령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 벌써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벌써부터 추워졌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드립니다.

태국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국가비상사태”를 또 11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항쟁” 데모가 계속되고 있어서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태국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별 찬송가 경연대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수 있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셀 그룹(5개셀)으로 찬양경연대회를 갖었습니다.

모두 힘써 준비한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므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 전도사 신학교를 졸업.



고등학교 1 학년 부터 우리 축복의 집에서 함께 자라나 신학생이 되었던 간 전도사가 1년간의 인턴생활을 잘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객을 1명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간 엄마 혼자 참석하였지만 우리 롬프라편교회는 축하위로금과 함께 축복의 집 아이들의 축하 파티가 있었습니다.

간 전도사는 치앙라이 교회에서 부교역자와 기숙사 사감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왕국 태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2333/3 Theparak Soi 66, Theparak Rd., Muang, Samutprakan 10270 Thailand
 E-mail : pakmogsa@hanmail.net 카톡ID : pakmogsa
 ☎(001)-66-81-814-5968, (001)-66-84-705-6623
 후원 계좌:010-04-06389-795(외환,GMS). 129-12-012484(농협,박영성). 3333-04-9523013 (카카오뱅크)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 2020년 09월-10월 태국 선교편지

E.F.T(복음주의연맹) 총회 참석.



우리 “축복선교회”는 태국 E.F.T(복음주의연맹)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총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축복선교회는 4명(박영성,이상훈,박대성,곽규승)의 선교사가 총대로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총회의 이슈는 결원된 부총회장선출과 총회발전을 위한 “2030계획”(5천-5만-50만운동. 즉 2030년까지 5천명의 사역자, 5만개의 교회, 50만명의 성도가 되게하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축구대회.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위한 하반기 축구대회가 5교회 연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는 취소하고, 하반기에도 적은 수가 모였지만,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교회 상황.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북쪽의 산족교회를 9개월동안 가보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소천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산족전도를 위해 동역해오던 이장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여 아픔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족교회는 10월 하순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지난 1년동안 지켜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기도제목

1. COVID-19를 완전히 이기고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2. COVID-19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3. E.F.T(태국복음주의총회)의 2030년 계획(5천-5만-50만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 롬프라편교회와 19개의 개척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5. 12월에 있을 세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례식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6. 박영성.정세미 선교사의 건강과 아들 진수의 미래를 지켜 주옵소서.

2020년 10월 31일

태국에서 사랑의 빛을 진 박영성.정세미.진수 선교사 드림.